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

이지현 | 몽환서: 소란한 공백

ARARIO GALLERY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

ARARIO
GALLERY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

이지현 LEE JIHYUN

몽환서: 소란한 공백
Fantasma: Restless Silence

2026. 7. 1 - 8. 15
ARARIO GALLERY SEOUL



Contents

Essay

회화의 물질적 시공간과 의식의 층계들 | 박미란 6

Painting as Material Space-Time and the Strata of Consciousness | PARK Miran 8

Artwork 10

Artist Statement

시간을 건너는 이미지들 – 《몽환서: 소란한 공백》을 만들며 | 이지현 17

Images in Passage – On Creating *Fantasma: Restless Silence* | LEE Jihyun 18

Artwork 20

CV 81

회화의 물질적 시공간과 의식의 층계들

박미란 | 아라리오갤러리 팀장

빈 화면, 그 소란스러운 공백을 마주하는 작가의 첫 순간을 상상하여 본다. 고정된 상태에 머물지 않는 한시적 여백, 유예된 침묵을 대면하는 자의 시간을 가능해 보는 일이다. 회화의 이유는 결국 불확실한 세계의 일각을 손에 잡히는 물성과 눈에 보이는 구조로 번역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지 않을까. 이지현의 회화는 오래도록 작가의 내밀한 사적 기억을 외부 세계의 공적 담론과 연동시키는 매개체로서 기능해 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로부터 비롯된 이미지들은 회화의 화면 위에 중첩됨에 따라 혼종적 군집으로 재구성된다. 형상들은 저마다 꿈속에서 목격한 풍경이나 모호한 기억의 상태를 지시한다. 각각의 요소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일부를 지니면서도, 초현실적인 구조 안에 재배치됨으로써 보통의 날들로부터 멀어진다.

회화의 물질적 시공간

이지현의 관념적 주제, 가령 꿈속의 장면이나 내밀한 기억들, 신화적 요소들은 회화라는 매체가 갖는 물질적 속성, 즉 재료의 물성 및 지지체의 면적과 같은 형식적 조건들과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회화적 이미지로 번안된다. 작업 과정 속에서 이미지는 그리는 자의 의식 세계를 경유하여 한 차례 번역되고,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재현의 단계에서 또 한 번 재구성된다. 이때 화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매 순간 닦쳐오는 미래의 시공간이 조우하는 물질적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특수한 회화의 화면은 결국 최초의 관념적 서사를 보다 정동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탈바꿈시킨다. 달리 말하면, 물질적 장으로서의 회화는 개별 요소와 세부 서사의 언어화에 앞서 언제나 신체적 마주침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경험된다.

이번 전시 《몽환서: 소란한 공백》에서 이지현은 세 개 층으로 나누어진 건축 구조에 의식의 층위를 투영한다. 그래서 전체의 전시 공간은 세 가지 다른 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책에 비유된다. 우선 가장 높은 층고를 지닌 지상층에서 작가는 신화와 역사의 광대한 시간 위에 자신의 서사를 중첩하여 바라보기를 시도한다. 〈스피놀라 시간〉(2020-2025) 연작을 비롯한 최근작은 16세기 초 플랑드르에서 제작된 채색 필사본인 『스피놀라 시도서 *Spinola Book of Hours*』(c. 1510-1520)를 접한 경험을 주요한 계기로 삼는다. 시도서(時禱書, Book of Hours)는 기도문과 시편, 달력, 세밀하고 호화로운 삽화를 포함한 책으로, 일정한 시간에 행하는 기도의 내용을 포함한다. 『스피놀라 시도서』는 중세 이탈리아 제노바 지역의 스피놀라 가문이 소유하였던 기도서로, 책의 페이지를 각각 하나의 공간처럼 연출하였으며 환상적인 테두리 장식과 건축적 구조의 활용, 다층적인 구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지현은 낯선 시대와 문화의 유산인 『스피놀라 시도서』의 존재로부터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이는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경험한 불안과 고독의 감각을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적 실천에 투영하여 얻은 일종의 위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지현은 자신의 작업을 ‘시간과 공간의 중첩을 기록하는 회화’라고 정의한다.¹ 이미 시공간적 좌표를 갖고 존재하는 회화라는 사물 위에 중첩된 것은 곧 작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 행위와 직관의 복합물일 것이다. 작가는 개별 이미지가 시각 언어로서 지시하는 시공간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료의 점성과 붓질에 실는 힘, 응시의 기간과 직관적 선택, 환경적 조건과 우연한 효과가 총총히 교차하며 직조해낸 회화라는 사건 자체의 시공간적 중첩을 의식한다. 한편, 그는 때로 특정 이미지의 반복 사용을 통하여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복수의 화면을 공명시킨다. 〈경계_모래사장_1〉(2011)에서 광범위한 면적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모래사장의 풍경이 〈스피놀라 시간_7월 사자자리〉(2023-2025)와 〈스피놀라 시간_12월 염소자리〉(2023-2025)의 액자식 구성 화면에 재차 나타나는 식이다. 여기에서 모래사장은 완전히 다른 시공간적 맥락의 화면들을 시각적으로 접붙이는 요소로서 작동한다.

가시화된 의식의 층계

중간 층에서 마주하는 작품들은 보다 개별적인 일상의 기억들을 소재 삼은 회화 연작이다. 복잡다단하게 뒤엉킨 형상들의 군집은 기존에 없던 낯선 구조를 이끌어낸다. 팝업 북의 구조를 차용한 기하학적 형상은 이지현의 화면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온 조형 요소이다. 〈빛이 덮이는 시간_2〉(2025)는 중세 채색 필사본의 장식적인 테두리와 아치형 창문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성인의 모습과 신비한 자연 풍경을 일차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 위에 기하학적 구조물의 형태가 반투명하게 중첩된 모습을 선보인다. 〈봉인된 정원〉(2026)에서 화면 전면을 차지한 커피아웃 형태의 붉은 구조물은 초록 정원의 풍경을 잠식하듯 재편한다. 얇은 막과 같이 나타나는 그것들은 회화적 층위의 상징인 한편, 저마다의 화면 속에서 접힘과 절개, 단절 또는 관통의 구조로 변주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간의 정원을 돌보는 이〉(2025)나 〈접힌 무대〉(2025)에서 반투명한 종이 구조물과 같이 형상화된 그것들은 혼란한 망상의 세계에 주관적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때 화면 속 세계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막의 형상은 작가의 의식적 층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다층적 화면 구조는 회화라는 매개면 내외부의 입체적 공간의 존재를 암시한다. 낱장의 종이로 만든 입체적 팝업 구조가 그렇듯, 본질적으로 평면적인 회화가 다차원적인 공간감을 자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지현의 이미지는 회화의 평면성과 그 환영이 내비치는 공간성, 그리고 회화라는 사물이 귀속된 전시 공간의 장소성을 다중적으로 횡단하는 경험 속에서 목격된다.

의식의 층계 구조는 이지현 특유의 작업 체계에서도 나타난다. 〈판타즈마〉(2011-)라고 이름 붙인 소형 회화 연작은 그 명칭이 암시하듯 작가의 직관을 최대한 즉각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가장 섬세하고도 유령적인 이미지를 포착한 결과물이다. 달리 말하면, 이지현은 〈판타즈마〉를 통하여 최대한 자신의 잠재의식에 가까이 접근하기를 시도한다. 해당 연작은 작가의 회화적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토대, 즉 가장 즉흥적인 동시에 가장 내밀한 낱것의 아이디어들을 투영해 보여준다. 전시에 선보인 〈날아가는 오브제〉(2023)에서와 같이, 해당 연작은 때로 천으로 꿰매어 만든 수공적 오브제를 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촉감과 부피를 강조한다. 〈판타즈마〉에 담긴 이미지의 파편들은 향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화면 위에서 보다 의식적으로 구조화된다.

가장 위층 전시장에서는 밀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 생천 위에 드로잉하듯 작업한 연작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해당 연작을 통하여 이지현은 낯 것 그대로의 직물 표면으로부터 회화적 신체성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한다. 붓이 머금은 물감의 점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생천의 여백은 그로써 피부를 닮은 한편, 그리는 자의 신체적 행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캔버스 두 폭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신작인 〈구조와 잔상〉(2026) 또는 〈깊은 생각의 주름〉(2024) 등에서 작가는 이미지의 완결성보다 과정성을 드러내는 데 몰두한다. 화면은 작가의 선과 붓질이 지나간 궤적을 가감 없이 내보인다.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는 중첩 및 연결되고, 본질 또는 결합되며 화면 위에 놓인 공백을 각자의 방식으로 메워 나간다.

이지현의 회화는 의식과 무의식, 꿈과 현실, 언어와 비언어의 층위를 교차적으로 횡단한다. 그 과정 속에서 회화라는 사건에 연루된 시간과 공간의 속성들은 저마다 물감에 용해되고, 총총이 중첩된다. 화면 위에 되새김된 기억과 기록, 신화와 역사의 파편들은 작가의 주관적인 질서 아래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된다. 그렇게 구축된 화면은 모든 마주침의 사건 속에서 즉각적인 정동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감각되고, 의식적으로 포착됨에 따라 마주한 존재들의 정서를 변화시킨다. 촉각적인 신체에 마주 닿는 환영으로서의 회화는 낯선 존재 사이 비언어적 공명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현실의 장소 위에 내려 둔 닳이 아닐까. 무수한 환상으로 소란한 이지현의 회화는 가장 내밀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마음의 공백에 호소한다.

1 LEE Jihyun, "Artist Statement for *Fantasma: Restless Silence*," 2026.

Painting as Material Space - Time and the Strata of Consciousness

PARK Miran | Deputy Director, ARARIO GALLERY

Imagine the artist’s first encounter with a blank canvas—that restless emptiness before a single mark has been made. It is the moment one confronts a provisional void, a suspended silence that refuses to settle. Perhaps painting ultimately arises from the desire to understand an uncertain world by translating fragments of it into tangible materiality and visible structure. For many years, LEE Jihyun’s paintings have functioned as a medium that connects the artist’s intimate memories with the public discourse of the external world. Images drawn from deeply personal narratives accumulate across the pictorial surface, forming hybrid assemblages. Each motif alludes to dreamscapes or ambiguous states of memory. While retaining elements of realistic depiction, these forms are displaced within surreal structures,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familiarity of ordinary life.

Painting as Material Space-Time

LEE’s conceptual subjects—dream imagery, private memories, and mythological elements—take pictorial form through their encounter with the material properties of painting: the physical qualities of its medium and the formal conditions of its support, such as the dimensions of the canvas. In the course of painting, images first pass through the artist’s consciousness, undergoing one translation before being reconstructed through the bodily act of representation. The pictorial surface becomes a material field where past, present, and future continually converge. In this way, the singular space of painting transforms an initial conceptual narrative into an affective experience. In other words, before individual elements or narrative details can be articulated in language, painting as a material field is always experienced in the immediate moment of bodily encounter.

In *Fantasma: Restless Silence*, LEE projects different layers of consciousness onto the exhibition’s three-story architectural structure, transforming the exhibition into a book unfolding through three distinct chapters. On the ground floor, with its exceptionally high ceiling, the artist attempts to superimpose her own narrative upon the vast temporal horizon of myth and history. Recent works, including the *Spinola Hours* series (2020–2025), were largely inspired by her encounter with the *Spinola Book of Hours* (c. 1510–1520), an illuminated Flemish manuscript produced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A book of hours is a devotional manuscript containing prayers, psalms, a calendar, and richly illuminated miniatures intended for prayer at designated hours of the day. The *Spinola Book of Hours*, once owned by the Spinola family of Genoa, Italy, is distinguished by its treatment of each page as an independent spatial composition, its fantastical borders,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multilayered organization. LEE recalls experiencing an inexplicable sense of familiarity upon encountering this relic from a distant culture and era—a consolation, perhaps, born from projecting the anxiety and solitude she experienced as a foreigner in the United States onto the universal human devotional practice.

LEE defines her practice as “painting that records the overlapping of time and space.”¹ Painting already exists as an object with its own spatiotemporal coordinates; upon it, the artist layers her memories, experiences, gestures, and intuitions. She is attentive not only to the spatiotemporal information conveyed by individual images as visual language, but also to the dense interplay of the viscosity of paint, the force of each brushstroke, the duration of sustained looking, intuitive decision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ccidental effects, all of which weave together the event of painting itself. At times, she also creates resonances between works produced years apart through the repetition of specific motifs. For example, the expansive sandy beach that forms the background of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reappears within the framed compositions of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and *Spinola Hours_December: Capricorn* (2023–2025). Here, the beach functions as a visual hinge, connecting pictorial spaces belonging to entirely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contexts.

Visualized Strata of Consciousness

The works presented on the middle floor revolve around more personal memories drawn from everyday life. Their densely entangled clusters of forms generate unfamiliar compositional structures. Geometric motifs inspired by the mechanics of pop-up books have long been a recurring formal element in LEE’s paintings. *Vesper_Folded Hours_2* (2025) depicts the ornamental borders and arched windows of medieval illuminated manuscripts, along with saints and mysterious landscapes, while overlaying these images with translucent geometric constructions. In *Sealed Garden* (2026), a cutout-like red structure dominates the composition, reconfiguring the green landscape as though engulfing it. These membrane-like forms symbolize pictorial layers while simultaneously assuming the roles of folds, incisions, ruptures, or passages within each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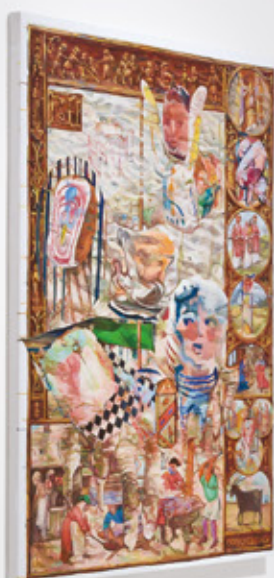
In works such as *The Gardener of Time* (2025) and *Folded Tableaux* (2025), translucent paper-like structures function as compositional devices that impose subjective order upon a world of chaotic fantasy. The membranous forms that reorganize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painted world may thus be understood as visualizations of the artist’s strata of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this multilayered pictorial construction suggests the existence of a three-dimensional space both within and beyond the surface of painting. Just as a pop-up structure fashioned from sheets of paper transforms a flat page into spatial experience, LEE’s paintings encourage fundamentally two-dimensional surfaces to evoke multidimensional spatiality. Consequently, her images are encountered through experiences that traverse the flatness of painting, the illusionistic space it projects, and the sense of place of the exhibition space to which the painting belongs.

This layered structure of consciousness also manifests itself in LEE’s distinctive working process. The ongoing series of small paintings entitled *Fantasma* (2011–) seeks, as its title suggests, to capture the most delicate and spectral images by recording the artist’s intuition as immediately as possible—approaching her subconscious as directly as painting itself permits. The series reveals the fundamental ground of her painterly world: her most intimate, spontaneous, and unprocessed ideas. As seen in *Flying Object* (2023), works in the series occasionally incorporate hand-sewn textile objects, emphasizing the tactile and volumetric qualities of the image. Fragments of imagery first explored in *Fantasma* later become more consciously structured within larger-scale compositions.

The uppermost gallery is devoted to works executed almost as drawings on unprimed canvas. Through this series, LEE explores the expressive potential of the body’s presence in painting emerging directly from the raw textile surface. The untouched canvas responds immediately to the viscosity of paint carried by the brush, becoming at once skin-like and receptive—a surface that faithfully records the traces of the artist’s bodily gestures. In recent diptychs such as *Structure and Afterimage* (2026) and *Creases of Contemplation* (2024), the artist is less concerned with pictorial completion than with revealing process. The surface openly displays the trajectories of lines and brushstrokes. Images and texts overlap and connect, separate and recombine, each filling the blank spaces of the canvas in its own way.

LEE’s paintings traverse the strata of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dreams and reality, language and the non-verbal. Throughout this process,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embedded in the event of painting dissolve into pigment and accumulate in successive layers. Memories and records—fragments of myth and history reiterated upon the pictorial surface—are entirely rearranged according to the artist’s subjective order. The resulting image generates an immediate affective response in every encounter. As it is sensed bodily and apprehended consciously, it transforms the emotional state of those who stand before it. As an illusion that is experienced through the body, painting ultimately becomes an anchor cast into the world in the hope of fostering a nonverbal resonance between unfamiliar beings. Restless with countless fantasies, LEE’s paintings appeal to the most intimate—and therefore the most universal—voids within the human mind.

1 LEE Jihyun, “Artist Statement for *Fantasma: Restless Silence*,” 2026.





Installation view of *Fantasma: Restless Silence* at Arario Gallery Seoul, 2026



스피놀라 시간_7월: 사자자리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Oil on canvas
213.3×152.4 cm | 84×60 inch



스피놀라 시간_12월: 염소자리
Spinola Hours_December: Capricorn
2023-2025. Oil on canvas
213.3×152.4 cm | 84×60 inch



시간을 건너는 이미지들

《몽환서: 소란한 공백》을 만들며

이지현

어릴 적, 꿈속에서 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랐지만, 같은 꿈을 다시 꾸지 않는 한 동일한 경험은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회화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감각이었다. 현실과 맞닿아 있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 기억과 망각,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낯설게 펼쳐지는 장면들이다. 나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의 중첩을 기록하는 회화이다. 직접 경험한 장소와 기억, 일상의 사물과 풍경은 서로 뒤엉키고 변형되며 하나의 화면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회화는 씨실과 날실이 직조되듯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기억을 더듬고 잊고 다시 생성하는 인간의 인식 과정과 닮아 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는 순간, 이미지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또 다른 기억의 형태로 출현한다.

전시명의 '몽환서'는 기억과 상상, 믿음과 경험이 뒤섞여 기록되는 하나의 개인적 필사본을 뜻한다. 세 개의 층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개인의 기억이 반복을 거쳐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는 과정(Myth), 기억이 구조와 파편으로 조직되는 방식(Memory), 그리고 그것이 몸과 물질의 흔적으로 남는 상태(Reality)를 따라간다. 각각의 공간은 독립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가 시간을 건너며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가는 서사이다. 전시에서는 구작인 〈경계_모래사장_1〉(2011)과 최근작 〈스피놀라 시간_7월 사자자리〉(2023-2025), 〈스피놀라 시간_12월 염소자리〉(2023-2025)를 함께 선보인다. 세 작품에는 모래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의 패턴이 반복되어 등장한다. 1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미지가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변주되며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는 오래전의 작업이 현재의 작업 안에서 어떻게 되돌아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들뢰즈가 말한 '차이와 반복'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가 생성되는 과정에 가깝다. 서로 다른 시간에 그려진 그림들을 한 공간에 놓고 바라보는 일은 나에게도 하나의 실험이다. 과거의 작업과 현재의 작업은 전시장에서 비로소 서로를 만나 또 다른 연결을 만들어낸다. 작가인 나 역시 관객의 위치에서,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이미지들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Images in Passage

On Creating *Fantasma: Restless Silence*

LEE Jihyun

When I was a child, I often imagined writing down the dreams I had seen, pairing words with drawings so I would never lose them. I wanted to believe that, years later, I could return to those places exactly as I had first encountered them. Eventually I realized that this was impossible. Unless the same dream returned, the experience itself could never be repeated. From that point on, what I wanted to pursue through painting was precisely that sensation. I became interested in spaces that touch reality yet could never exist within it—places where memory and forgetting, past and present, overlap until they become indistinguishable. My paintings record the layering of time and space. Places I have lived, memories, everyday objects, and landscapes intertwine and transform, forming new relationships within a single image. Painting unfolds much like the weaving of warp and weft: its surface is repeatedly emptied and filled, echoing the human process of searching through memory, forgetting, and continually generating new perceptions. When different moments converge within a single painting, the image no longer functions merely as a representation of experience; it emerges as another form of memory.

The exhibition borrows its English title, *Fantasma*, from a recent body of work centered on fleeting, dreamlike images that emerge unexpectedly, linger for a moment, and disappear again like apparitions. While the Korean title suggests an imaginary manuscript shaped by memory, imagination, belief, and lived experience, *Fantasma* emphasizes the elusive nature of these images as they reappear, transform, and connect across time. The exhibition unfolds through three interconnected layers: Myth, where personal memories gradually become private mythology through repetition; Memory, where those experiences are reorganized into structures and fragments; and Reality, where they remain as physical traces carried by the body and the material surface of painting. Rather than separate chapters, these three floors form a continuous passage in which images travel across time, returning in altered forms and generating new relationships. This exhibition brings together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with the more recent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and *Spinola Hours_December: Capricorn* (2023–2025). Across these works, the pattern of footprints left in the sand appears repeatedly. Although more than a decade separates the two bodies of work, the same image returns in different contexts, taking on new meanings each time. By placing these paintings together, I wanted to observe how an image from the past reappears within my present practice. It recalls what Gilles Deleuze describes in *Difference and Repetition*: repetition is never the return of the same, but the process through which new meanings and relationships continually emerge. Bringing paintings made years apart into the same space is itself an experiment for me. Only in the exhibition do these earlier and later works finally encounter one another, forming new connections within the space itself. In that sense, I, too, become a viewer, following the images as they continue their passage across time.





경계_모래사장_1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Oil on canvas
 224×183 cm | 88 3/16×72 inch (overall)
 162.5×183 cm; 81.5×183 cm | 64×72 inch; 32 1/4×72 inch (2 panels)



스피놀라 시간_3월: 양자리, 4월: 황소자리 (딤티크)
 Spinola Hours_March: Aries, April: Taurus (Diptych)
 2020-2022. Oil on canvas
 152.5×305 cm | 60×120 inch (overall)





Installation view of *Fantasma: Restless Silence* at Arario Gallery Seoul, 2026



Installation view of *Fantasma: Restless Silence* at Arario Gallery Seoul, 2026

빛이 덮이는 시간_2
 Vesper_Folded Hours_2
 2025. Oil on canvas
 182.9×122 cm | 72×48 inch



빛이 덮이는 시간_1
 Vesper_Folded Hours_1
 2025. Oil on canvas
 182.9×122 cm | 72×48 inch



접힌 무대
 Folded Tableaux
 2025. Oil on canvas
 182.9×122 cm | 72×48 inch



바람개비
Pinwheel
2025. Oil on canvas
101.6×152.4 cm | 40×60 inch





시간의 정원을 돌보는 이
The Gardener of Time
2025. Oil on canvas
152.4×182.9 cm | 60×72 inch



안뜰에 머문 빛
 Courtyard Sunbeam
 2026. Oil on canvas
 122×91.5 cm | 48×36 inch



봉인된 정원
Sealed Garden
2026. Oil on canvas
122×91.5 cm | 48×36 inch



그 사이의 시간

한 장의 이미지는 완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두 장면 사이에서, 한 목소리와 또 다른 목소리 사이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종간의 상태로 남는다.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은, 그 사이의 시간이다.

기억이 완전히 침묵하기 직전의 미세한 떨림,

말이 아직 형태를 얻기 전의 공기,

빛이 사라지며 남긴 가장 마지막 결.

그 틈에서 나는 색을 겹치고, 형태를 비틀고,

서로 다른 시대의 잔상을 얇게 포개며

보이지 않는 서사를 만들어간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그 겹쳐진 층들 사이를 느리게 왕복한다.

이 회화들은 기록이라기보다 머무름의 흔적이다.

완결되지 않은 책장의 여백처럼,

접히고 퍼지는 순간마다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들.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낸 시간을,

잠시나마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

The Space Between Time

An image never completes itself.

It always lingers between two scenes,

between one voice and another,

remaining for a moment in the state of in-between before it fades away.

What I paint is that space of time—

the subtle tremor before memory falls silent,

the air before words take form,

the last thread of light before it disappears.

In that gap, I layer colors, twist forms,

and thinly overlay traces from different times

to create an unseen narrative.

Time does not move in a single direction;

it moves slowly back and forth

between the folded layers.

These paintings are less a record than a trace of lingering—

like the margin of an unfinished page,

stories that unfold and refold,

being born again with each turning.

There, for a brief moment,

I feel I might hold myself,

and the time we have lived.





간극_이중 통로
 Interstice_Double Passage
 2026. Oil on canvas
 182.9×122 cm | 72×48 inch





겹겹의 기도
Layered Prayers
2026. Oil on canvas
122×91.5 cm | 48×36 inch



창에 남은 장면
Window Fragment
2026. Oil on canvas
122×91.5 cm | 48×36 inch



Installation view of *Fantasma: Restless Silence* at Arario Gallery Seoul, 2026



보라색 언덕
Violet Knoll
2023. Oil on canvas
25.4×25.4 cm | 10×10 inch



날아가는 오브제
Flying Object
2023. Acrylic on wooden panel, watercolor on stuffed muslin, sewing pin
ø25.5×12.7 cm | ø10×2¼ inch





Installation view of *Fantasma: Restless Silence* at Arario Gallery Seoul, 2026



구조와 잔상

Structure and Afterimage

2026. Watercolor on muslin, felt, and wool yarn, graphite, pastel, and acrylic on unprimed canvas
162.5×325 cm | 64×128 inch (overall)

사유의 길을 따라
Tracking the Thinking Path
2024. Oil pastel, acrylic, graphite, pastel, oil on unprimed canvas
162.5×162.5 cm | 64×64 inch





깊은 생각의 주름

Creases of Contemplation

2024. Watercolor on muslin and felt, graphite, pastel, and acrylic on unprimed canvas
162.5×162.5 cm | 64×64 inch





등장인물들
Characters

2017. Oil, crayon, pastel, conte on unprimed canvas
160×171 cm | 63×67 inch



좁은 문으로_1
Pilgrimage_1

2024. Pastel, acrylic, oil stick on unprimed canvas, mounted on wooden panel
71×66 cm | 28×26 inch



좁은 문으로_2
Pilgrimage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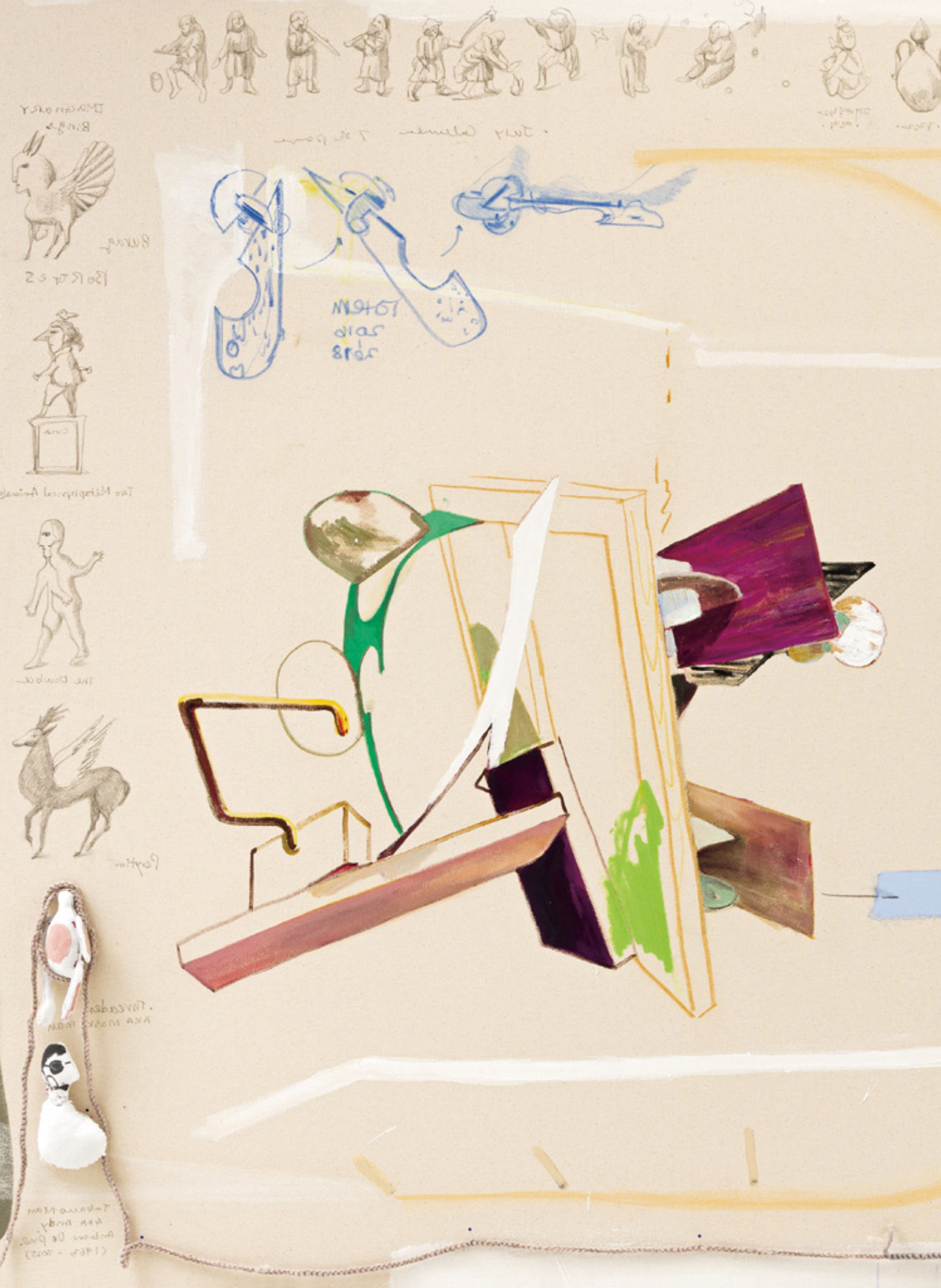
2024. Pastel, acrylic, oil stick on unprimed canvas, mounted on wooden panel
69×66 cm | 27×26 inch

파란 형상들
Shapes in Blue
 2017. Acrylic, crayon on unprimed canvas
 175×181 cm | 69×71½ inch





Installation view of *Fantasma: Restless Silence* at Arario Gallery Seoul, 2026



이지현

1979년 서울 출생

미국 뉴헤이븐에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1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학사

200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학과 석사

2018 미국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순수미술 석사

개인전

2026 몽환서: 소란한 공백,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5 틈, 일리 현대미술센터(ECOCA), 뉴헤이븐, 미국

2022 레드선,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언더그라운드 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3 경계,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2012 경계,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08 반사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06 매시업,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이지현 개인전, 아라리오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2005 외출, 두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이지현 개인전, 갤러리현대 원도우갤러리, 서울, 한국

2004 일상 공간의 존재,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한국

2003 제1회 개인전, 갤러리 아티누스,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6 알드리치 데시니얼: 나는 나를 둘러싼 것이다, 알드리치 현대미술관, 리지필드, 미국

2024 꿈꾸는 것을 누릴 자격, 넥스트헤이븐(NXTHVN), 뉴헤이븐, 미국
스물, iiiiotae_프로젝트 스페이스, 뉴헤이븐, 미국
착륙지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3 블록과 다리: 뉴헤이븐의 세계 짓기, 크리에이티브 아트 워크숍, 뉴헤이븐, 미국
불확정의 역사들, 뉴얼라이언스 재단 아트갤러리, 뉴헤이븐, 미국
아트 드롭스: 장소의 감각, 헤이븐리(Havenly), 뉴헤이븐, 미국

2021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파프): 파이널 컷,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2020 모든 것이 달라진 지금, 스테이 홈 갤러리, 패리스, 테네시, 미국
댄싱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18 전술, 작업, 용어, 형식, 진술, 371 브로드웨이, 뉴욕, 미국
지상 최대의 쇼, 슬라이드쇼 갤러리, 뉴욕, 미국

2017 예술, 편지, 집: 작가의 필사본, CAA 메인 갤러리, 항저우, 중국
AAAAAAAAAAAAAH!, 스페이스 히터 갤러리, 뉴욕, 미국

2016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워터풀 갤러리, 뉴욕, 미국
2011 아티스트 위드 아라리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파라노이드 씬,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서울

2010 아티스트 위드 아라리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09 기록문화특별전: 전통과 현재, 서울대학교미술관 및 규장각, 서울, 한국
더블 판타지: 한국 현대미술전, 마루가메 겐이치로 이노쿠마
현대미술관, 가가와, 일본

표면 위의 공간,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2006 또 다른 세계,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사물시선(事物視線),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05 비전과 전망,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마이 프라이빗 갤러리,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젊은 작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제3회 프리뷰, 대안공간 팀프리뷰, 서울, 한국
일인칭의 공간, 선화랑, 서울, 한국

2004 운정의 향기,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프로젝트 139: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03 콜렉티드 페인팅, 대안공간루프, 서울, 한국
제9회 신진작가발언전,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명함전, 대안공간루프, 서울, 한국

2002 날아가는 돼지문화열차, 도시철도5호선, 서울, 한국
냉장고를 열다, 이화여자대학교 갤러리, 서울, 한국
제5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서울, 한국

2001 이지현·임영주, 갤러리 헬로아트, 서울, 한국
제4회 인디페스티벌, 클럽 수퍼 플라이, 서울, 한국
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씨알이론: 가면, 동덕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0 제2회 사랑의 공갈단: 작업중,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
공장미술제 2000: 눈먼 사랑, 샘표공장, 서울, 한국
제3회 독립예술제: 비루스, 예총회관, 서울, 한국
제1회 사랑의 공갈단: 작업중, 한서갤러리,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12 두산레지던시, 뉴욕, 미국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국

UBS 아트 컬렉션, 스위스

벽산엔지니어링, 한국

GS 에너지, 한국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LEE JIHYUN

Born in 1979, Seoul, Korea
Currently works and lives in New Haven, CT, US

EDUCATION

- 2001
- BFA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2003
- MFA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 2018
- MFA Fine Arts,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NY, US

SOLO EXHIBITIONS

- 2026
- Fantasma: Restless Silenc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5
- Interstice*, ECOCA (Ely Center of Contemporary Art), New Haven, CT, US
- 2022
- Red Scene*, ARARIO GALLERY SEOUL (Underground in SPACE), Seoul, Korea
- 2013
- Threshold*, Doosan Gallery, Seoul, Korea
- 2012
- Threshold*, Doosan Gallery, New York, NY, US
- 2008
- Reflective Surfac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06
- Mash Up*, Gallery Sun Contemporary, Seoul, Korea
Jihyun Lee, ARARIO GALLERY BEIJING, Beijing, China
- 2005
- Going Out*, doART Gallery, Seoul, Korea
Jihyun Lee,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 2004
- Confusion of Daily Space*, Art space Hue, Seoul, Korea
- 2003
- The 1st Solo Show*, Gallery Artinus,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6
- The Aldrich Decennial: I Am What Is Around Me*, Aldrich Contemporary Art Museum, Ridgefield, CT, US
- 2024
- Deserve What You Dream*, NXTHVN, New Haven, CT, US
*Small, iiiiotae*_Project Space, New Haven, CT, US
Landing Poin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3
- Blocks and Bridges: Worldbuilding in New Haven*, Creative Arts Workshop, New Haven, CT, US
Indefinite Histories, NewAlliance Foundation Art Gallery, New Haven, CT, US
Art Drops: A Sense of Place, Havenly, New Haven, CT, US
- 2021
- Post Archive Faction (PAF): Final Cu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0
- Everything Is Different Now*, Stay Home Gallery, Paris, TN, US
Dancing Quee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18
- Tactics*, Works, Terms, Forms, Statements, 371 Broadway, New York, NY, US
The Greatest Show on Earth, Slideshow Gallery, Brooklyn, NY, US
- 2017
- Art. Letter. Home: Artist Manuscript*, Main Gallery at CAA, Hangzhou, China
AAAAAAAAAAAAH!, Space Heater Gallery, Brooklyn, NY, US
- 2016
- The Need for My Care*, Waterfall Gallery, New York, NY, US
- 2011
-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Paranoid Scene, Interalia Art Company, Seoul, Korea
- 2010
-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09
- Document Culture: Tradition and Pres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Double Fantasy-Korean Contemporary Art,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Kagawa, Japan
Space on the Surface, Doosan Gallery, Seoul, Korea
- 2006
- Another Worlds*,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The Way of Viewing Object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05
- Vision & Perspectiv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My Private Gallery,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Seoul Exhibition of Young Artist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The 3rd Preview, Alternative Space Team Preview, Seoul, Korea
The Space of ‘SUM’, Gallery Sun, Seoul, Korea

- 2004
- Scent of Woon Ju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Project 139: The Garden of Forking Paths,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03
- Collected Painting*, Alternative Space_Loop, Seoul, Korea
The 9th Contemporary Expressions of Korean Young Artist, Gwanhoo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Name Card,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 2002
- Happy Flying Piggie Metro*, City Metro_Line 5, Seoul, Korea
Open a Refrigerator,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5th Seoul Fringe Festival, Seoul, Korea
- 2001
- Lee Jihyun & Lim Youngjoo*, Gallery HelloArt, Seoul, Korea
The 4th Indie Festival, Club Super Fly, Seoul, Korea
The Water, Seoul Museum of Modern Arts, Seoul, Korea
A China Robot Mask, Dong-duk Art Center, Seoul, Korea
- 2000
- The 2nd Working in the Gallery*,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L'Amour Aveugle, Sempio Factory, Seoul, Korea
The 3rd Indie Festival: Virus, Seoul, Korea
The 1st Working in the Gallery, Hanseo Gallery, Seoul, Korea

RESIDENCIES

- 2012
- Doosan Artist Residency, New York, NY, US

COLLECTIONS

- Government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Korea
-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Korea
- UBS Art Collection, Switzerland
- Byucksan Engineering, Korea
- GS Energy, Korea
- ARARIO Collection, Korea

이지현 LEE JIHYUN

몽환서: 소란한 공백

Fantasma: Restless Silence

2026. 7. 1 - 8. 15

ARARIO GALLERY SEOUL

기획	아라리오갤러리	Organized by	ARARIO GALLERY
총괄 디렉터	강소정	Executive Director	KANG Sojung
팀장	박미란	Deputy Director	PARK Miran
글	박미란	Text	PARK Miran
	이지현		LEE Jihyun
번역	아라리오갤러리	Translation	ARARIO GALLERY
디자인	박성휘	Design	PARK Seonghwi
	이수현 (그루아트)		LEE Suhyun (G-RU Art)
사진	이시우 (온아트스튜디오)	Photography	LEE Siwoo (OnArt Studio)
	로타 스튜디오		Lotta Studio
설치	피아	Installation	PIA
작품 ©	이지현	All works ©	LEE Jihyun
도록 © 2026	아라리오갤러리	Publication © 2026	ARARIO GALLERY
초판 인쇄일	2026년 8월 8일	First Published	8 August, 2026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작가와 아라리오갤러리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by any manner,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